



2024.4.15.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93호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SSN

2733-8258

발행일

2024년 4월 15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Contents

01	02	02	04	03	07
문제제기		사교육 참여 현황		사교육 과열의 원인	
04	10	05	18		
사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의 관계		결론			



요약

■ 사교육 과열 현상은 교육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미래인재 양성 정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본 브리프에서는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는 지속적인 증가세

-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2023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8천원, 중학교는 44만9천원, 고등학교는 49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

■ 사교육 과열의 원인

-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공교육 불만족, 사회적 규범이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사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의 관계

- 본 연구는 'OECD 학습 나침반 2030'에 기반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요구되는 요소와 사교육과의 관련성을 검토
- 핵심기초(문해력, 수리력 등) 관련하여, 사교육과 학업성취에 관한 실증연구 검토 결과
 - 사교육 참여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지에 관해 기존 실증연구 결과들은 서로 상반되며,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사교육과 학업성취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변인이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가 예상
- 핵심개념(학습자 주도성) 관련하여,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실증연구 검토 결과
 - 학교급이 높아지면 사교육 참여가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학생이 비자발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할 경우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 의존성을 더욱 심화할 수 있음
- 교육의 목적(개인의 웰빙) 관련하여,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실증연구 검토 결과
 - 사교육 참여 시 부모의 생각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사교육 참여 동기, 사교육 참여 수용 태도, 사교육을 통한 부모의 성취압력 등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의 목적(사회의 웰빙) 관련하여, 사교육과 저출산에 관한 자료 검토 결과
 -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26%가 사교육비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

■ 정책 시사점

- 사교육 경감 대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고용, 복지 정책 간 통합성 제고
- 개별 학습자의 학습요구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 대학별 다양한 인재육성 전략 실행 및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 평생학습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체제 강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

01

문제제기

- 사교육은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이자¹⁾ 공교육과 대립하는 고질적인 문제
 - 사교육은 고교평준화 제도, 대입제도와 함께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²⁾
 - 사교육 참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참여율이 월등히 높아 사교육 과열의 문제가 제기됨
 - 38개 국가 대상의 심지혜·김안나(2022)의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수학 과목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약 44%로 추정되며, 미국과 서유럽은 20% 내외, 일본과 싱가포르는 50%대, 한국은 약 78%로 나타남
 - 사교육을 통한 지나친 선행학습은 공교육의 역할을 침해하고, 학생의 학교수업 흥미 저하와 부정적 수업태도 형성 및 교사의 수업 동기를 낮춤³⁾
 -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학교교육 부실과 사교육 수요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사교육 과열은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적극적인 해결 필요
 - 사교육 과열은 교육불평등 심화로 계층이동성 및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인 경우 67만 1천원, 가구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인 경우 18만 3천원으로 나타남⁴⁾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에 차이가 나타나고, 이는 학력 격차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⁵⁾
 - 계층이동성 저하는 기회의 공정성과 노력 기반 보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함⁶⁾

1) 이종재, 이희숙(2008), p.204.

2) 상계서, p.204.

3) 에듀인뉴스(2016.10.31.)

4) 통계청 보도자료(2024.3.14.), p.10.

5) 머니투데이(23.1.17.)

6) 여유진 외(2015)

-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남⁷⁾
 - 사교육 과열을 야기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입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인재의 절대적인 양적 부족으로 국가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사교육 과열 현상은 미래인재 양성 정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사교육은 국가의 비전에 따라 수립·추진되는 교육정책에 시장의 방식으로 대응하며 팽창해 왔음
 - 과열된 사교육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⁸⁾
 - 4차산업혁명 시대 선진국으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인재 양성이 필요하나, 사교육 과열은 이와 관련된 교육정책 목표 및 전략과 상충할 수 있음
 - 사교육에는 주로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참여하므로,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문제발견 및 해결을 위한 탐구 정신과 새로운 지식창출 관련 역량의 계발보다는 정답이라는 기존 지식의 효율적인 습득에 초점을 둠
- 따라서, 본 브리프에서는 교육 분야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인재 양성 관련 정책 실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사교육 참여 현황 및 사교육 과열의 원인 분석, 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의 관련성 검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함

7) 한국경제(2023.6.16.)

8) 에듀인뉴스(2016.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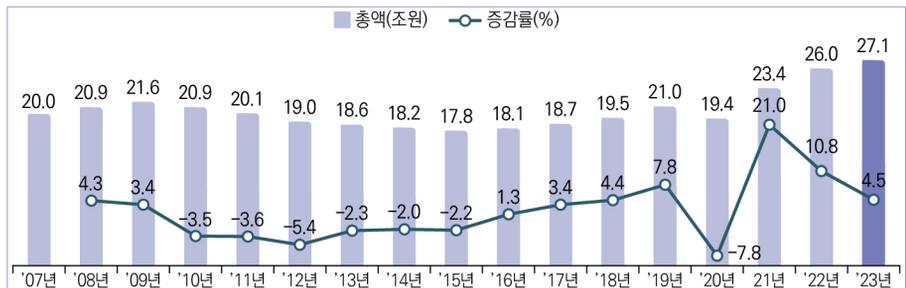
02

사교육 참여 현황⁹⁾

1.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변화

-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는 2015년 이후(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을 제외),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학생수(521만명)는 2022년(528만명) 대비 1.3% 감소¹⁰⁾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4.5% 증가함

그림 1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및 증감률: 2007~2023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4.3.14.),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결과」, p.1

2. 2023년 초·중·고등학교별 사교육 현황

-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고등학교 학생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
-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초등학교 학생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
- 전체학생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8천원, 중학교는 44만9천원, 고등학교는 49만1천원으로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9) 본 II 장 내용은 통계청과 교육부의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췌 및 일부 재정리하여 작성함

10) 통계청 보도자료(2024.3.14.)

표 1 2023년 학교급별 사교육 현황: 사교육비 및 참여율

학교급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¹⁾	
	2023년(원)	전년 대비 증감률(%)	2023년(%)	전년 대비 증감률(%p)	2023년(원)	전년 대비 증감률(%)
초등학교	12조4천억	4.3	86	0.8	39만8천	6.8
중학교	7조2천억	1.0	75.4	(0.8) ²	44만9천	2.6
고등학교	7조5천억	8.2	66.4	0.5	49만1천	6.9

주 1) 전체학생 기준, 2) 괄호는 음수
 자료: 통계청(2024.3.14.), p.1 내용을 표로 작성

3. 2023년 (전체학생) 과목 및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일반교과의 경우, 과목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 12만 8천원, 수학 12만 2천원, 국어 3만 8천원, 사회·과학 1만 9천원 순으로 많이 지출함¹¹⁾
 - 전년대비 국어(11.1%), 사회·과학(8.2%), 수학(5.6%), 영어(3.8%)로 일반교과에서 모두 증가함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영어(11만 2천원)에서, 중학교가 수학(16만 8천원)에서, 고등학교가 수학(17만 1천원)에서 각각 지출이 많음
-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경우,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함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15만원)가 중학교(5만5천원)와 고등학교(6만4천원)에 비해 관련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

표 2 (전체학생) 과목 및 학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일반교과	일반교과				예체능 및 취미·교양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2022년	41.0	31.0	3.4	12.3	11.6	1.8	9.8
2023년	43.4	32.6	3.8	12.8	12.2	1.9	10.5
증감률	5.8	5.3	11.1	3.8	5.6	8.2	7.1
초등학교	39.8	24.7	2.5	11.2	7.5	1.0	15.0
1학년	33.6	16.1	3.2	6.5	4.5	0.3	17.4
2학년	37.7	19.0	2.7	8.9	4.9	0.3	18.6
3학년	43.2	25.2	2.3	12.5	6.6	1.1	17.9
4학년	43.2	27.5	2.5	12.9	8.1	1.2	15.6
5학년	41.3	29.3	2.4	13.1	9.5	1.3	11.9
6학년	39.3	29.7	2.0	12.9	10.7	1.4	9.5
중학교	44.9	39.3	3.1	15.5	16.8	2.2	5.5
1학년	44.6	38.3	2.4	15.7	16.3	1.6	6.1
2학년	45.3	39.9	3.3	16.0	16.8	2.4	5.3
3학년	44.9	39.6	3.7	14.9	17.4	2.6	5.2

11) 통계청 보도자료(2024.3.14.), p.7

구분	전체	일반교과					예체능 및 취미·교양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고등학교	49.1	41.8	7.1	13.1	17.1	3.7	6.4
1학년	51.5	47.2	7.3	16.3	19.4	3.6	3.8
2학년	50.9	44.1	7.5	13.3	18.3	4.3	6.0
3학년	44.5	33.1	6.4	9.0	13.0	3.1	10.0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4.3.14.), p.7의 <표7>

4. 사교육 참여의 목적: 일반교과

-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목적은 학교수업 보충(49.6%), 선행학습(24.0%), 진학준비(14.2%)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¹²⁾
- 학교수업 보충목적의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49.8%, 중학교 51.5%, 고등학교 47.1%로 나타남
- 선행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25.3%, 중학교 27.1%, 고등학교 17.3%로 나타남
-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진학준비 관련 사교육 참여율이 31.3%로 나타남

표 3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

(단위: %, %p)

구분	진학준비	불안심리	선행학습	학교수업보충	보육	기타
2022년	14.2	3.5	24.1	50.0	5.5	2.5
2023년	14.2	3.2	24.0	49.6	6.3	2.7
증감	-0.0	-0.3	-0.1	-0.4	0.7	0.2
초등학교	6.1	2.8	25.3	49.8	12.2	3.8
중 학교	15.7	3.6	27.1	51.5	-	2.1
고등학교	31.3	3.4	17.3	47.1	-	0.9

* 복수응답 항목이며, 전체 응답을 100으로 환산함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4.3.14.), p.16의 <표18>

03

사교육 과열의 원인

- 선행연구에서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공교육 불만족, 사회적 규범이 사교육 과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
 - 공교육 불만족과 사회적 규범은 사교육 참여 이유로 쉽게 드러나지만, 학벌주의, 물질주의 및 자본주의는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교육 참여 증가에 영향을 미침
 - 사교육 과열은 사교육 시장 원리와 교육소비자의 행태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등 교육문제와 노동시장 입직, 보상, 승진체계 등 노동시장 시스템 전반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임

1. 학벌주의

- 학벌주의란, “동일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였다도 학교의 종류, 학교 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현상”¹³⁾으로,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출신 학교의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현상”¹⁴⁾
- 역사적, 사회제도 및 문화적 측면에서 학벌주의를 바탕으로 과열된 대학입시 경쟁이 사교육 과열을 유발함¹⁵⁾
- 한국은 대학 격차와 일자리 격차가 매우 큰 사회¹⁶⁾이므로 노동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명문대학,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입학하여 직업, 직종, 조직 선택 시 미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함¹⁷⁾
 - 대학서열에 따른 대학졸업자 간 생애임금 격차를 분석한 이지영과 고영선(2023: 188)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시 최상위 그룹 대학 졸업자들이 최하위 그룹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24.6%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이후 격차는 연령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40~44세에는 최대치인 50.5%를 나타내었음을 보고함
- 학벌주의는 ‘사교육에 대한 이중성’의 원리를 작동하게 함¹⁸⁾
 - 사회구성원들은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당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자녀의 대학입시와 관련될 때 상위권 대학 입학에 위해 사교육을 시키는 행태를 보이게 됨¹⁹⁾
- 사교육 활용의 세계적인 동향 및 국가별 차이를 연구한 심지혜·김안나(2022)의 연구결과, 한국은 아래와 같이 ‘강화전략’으로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13) 정태화(2004), p.94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김경근(2021)

16) 강준만(2019), 김경근(2021)에서 재인용

17) 김경근(2021)

18) 김경근(2020), p.140

19) 김경근(2020), p.140

- 사교육 활용 목적은 크게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활용하는 경우인 '보충전략(remedial strategy)'과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이 선행학습 등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교육을 활용하는 경우인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으로 분류할 수 있음²⁰⁾
- 분석대상인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사교육을 주로 보충전략으로 활용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원 부족으로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제한적이므로 더 나은 교육을 받고자 개인들은 사교육에 투자하며,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지위 획득에 필수적인 학력(학벌)을 갖추기 위해 사교육을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한국, 대만, 일본은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임에도 사교육이 장기간 정교한 형태로 정착되어왔고, 개인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강화전략으로 활용함²¹⁾

2.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 고도의 경제성장 시기 만연해진 물질주의 가치관과 노동시장에서 높은 소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를 보장하는 일자리의 제한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결합하여 부모세대의 경쟁심리와 불안이 사교육 투자를 유발함²²⁾
- 국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을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변화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질주의 가치관이 우세한 편임²³⁾²⁴⁾
- 자녀의 미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해, 사교육 시장에는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아버지 경제자본, 전업어머니 시간자본, 어머니 사회자본, 어머니 학력자본, 취업어머니 경제자본 등 매우 다양한 자본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남”²⁵⁾
- 공교육과 달리 사교육은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따르므로 사교육 수요에 맞춰 교육소비자의 목표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
 - 물질주의 가치관에서 더 나은 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사교육 활용

3.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 학교 수업은 학생 개인별 학습수준과 요구를 맞추기 어려우나, 사교육은 시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습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사교육에 참여²⁶⁾

20) Baker, Akiba, LeTendre, & Wiseman(2001), 심지혜, 김안나(2022)에서 재인용

21) 참고로, 한국, 대만, 일본의 이러한 경향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의미 관련 유사한 특징으로도 나타남. Pew Research Center(2021.11.18. 발표)에서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에 관한 조사 결과, 경제선진국 17개국 중 14개국에서 ‘가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한 반면, 한국, 대만, 일본은 ‘가족과 자녀’를 언급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나타남

22) 김경근(2019)

23) 장덕진(2017), 김경근(2019)에서 재인용

24) 앞서 언급한 Pew Research Center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에 관한 조사 결과, 한국은 ‘물질적 풍요(material well-being)’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함

25) 이수민, 김경식(2021), p.128

26) 김경근(2019)

- 내신 등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와 대학입학시험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사교육에 참여함²⁷⁾
- 학업성취 관련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에 참여
 - 최근 3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중고등학교 모두 수학에서 10~15% 가량의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남²⁸⁾
 - 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및 '우수학력'으로 구분되는 학생 비율은 2021년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감소함²⁹⁾

4. 사회적 규범³⁰⁾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교육 참여는 학업성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이 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사교육을 활용하므로, 사교육 참여가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됨
 - 즉, 사교육의 학업성취 향상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³¹⁾ 우수한 학업성적과 사교육 참여가 연결되고, 거주지역과도 연결되어 사회적인 의미를 형성하므로, 교육열과 유교문화권의 집단주의가 결합하여 사교육 참여가 관습적·당위적인 것으로 학부모를 압박할 수 있음
- 사교육 소비는 외부성이 있어 다른 부모들이 사교육을 줄이면 따라서 줄일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행태가 나타남³²⁾

27) 김경근(2019)

28)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0, 2021, 2022년

29) 전자신문(2023.12.17.)

30) 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을(2020).

31) 박현정, 변상민(2021)

32) 김희삼(2019)

04

사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의 관계

1.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 OECD 학습 나침반 2030³³⁾

- ‘OECD 학습 나침반 2030’은 학생들이 미래 웰빙을 추구·실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제안된 학습개념틀(Learning Framework)임³⁴⁾
 - OECD는 그동안 교육사업에서 생산성 향상, 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개발 등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³⁵⁾
 - 그러나 학습 나침반 2030에서 OECD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목적을 ‘개인과 사회의 웰빙’으로 제시하며 경제적인 성공과 발전뿐만 아니라 급속한 기술발달로 인한 사회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교육의 역할을 제시³⁶⁾
- 학습나침반 2030에서 ‘학습자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은 교육의 핵심 개념이자 목적으로 강조됨
- 핵심기초는 학습자의 행위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
 - ‘문해력, 수리력, 건강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핵심기초의 요소이며, 그 의미는 계속 확대될 수 있음³⁷⁾

33) 최수진 외(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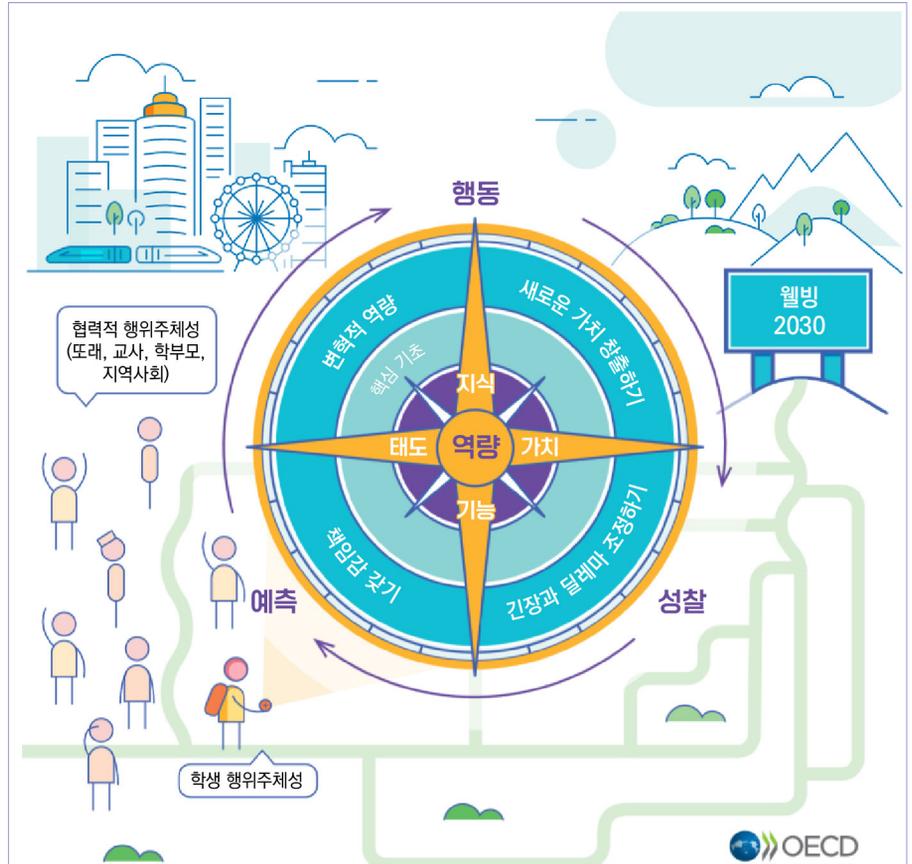
34)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홈페이지

35) OECD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홈페이지

36) 최수진 외(2019), pp.50-51.

37) 김동현 외(2020), p.35.

그림 2 OECD 학습 나침반 2030



* 주: 한글 번역은 최수진 외(2019) p.42의 [그림 III-1]에서 참조함
출처: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홈페이지

표 4 학습나침반 2030의 주요 영역 및 세부 요소

영역	세부 요소	
교육의 목적	개인과 사회의 웰빙, 학생 행위주체성	
역량의 범주	지식(knowledge)	학문적, 간학문적, 인식론적, 절차적 지식
	기능(skills)	인지적·메타인지적, 사회적·정서적, 실용적·신체적 기능
	태도와 가치 (attitudes & values)	개인적, 사회적, 사회관습적, 인류적 태도와 가치
핵심기초	문해력, 수리력, 건강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변혁적 역량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갖기	
역량개발 사이클	예측(Anticipation)-행동(Action)-성찰(Reflection)(A-A-R)	
구성원의 역할 및 상호작용	학생 행위주체성, 협력적 행위주체성	

자료: 최수진 외(2019),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p.43의 <표 III-1>

2. 사교육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OECD 학습나침반 2030의 요소에 기반

- 아래에서는 OECD 학습나침반에서 강조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핵심개념 및 핵심기초와 교육의 목적 관련한 측면에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국내 학술연구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³⁸⁾
 - 핵심기초(문해력, 수리력 등) 관련하여, 사교육과 학업성취에 관한 실증연구 검토
 - 핵심개념(학습자 주도성) 관련하여,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실증연구 검토
 - 교육의 목적(개인의 웰빙) 관련하여,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실증연구 검토
 - 교육의 목적(사회의 웰빙) 관련하여, 사교육과 저출산에 관한 자료 검토

(1) 사교육과 학업성취의 관계

- 사교육의 주목적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있으므로, 사교육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학술연구가 활발히 이뤄짐³⁹⁾
- 사교육 참여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지에 관해 기존 실증연구 결과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줌⁴⁰⁾
 -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 효과가 아주 적거나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 부정적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모두 존재함⁴¹⁾
- 본고에서 검토한 사교육 참여와 학업성취 관계를 보여준 최근 연구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함(〈표 5〉)
 - 사교육 참여시간이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과목별로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
 - 사교육 참여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시간 또한 학업성취를 높이는 중요한 기제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자기주도학습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아짐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 사교육 참여는 학업성취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요인이라기보다 학습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
-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단순히 직접효과라기 보다, 사교육과 학업성취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변인(예: 사교육 참여 동기, 사교육 종류, 사교육에서 부모개입 정도, 부모-자녀 관계 및 부모의 양육 방식 등)이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가 예상됨⁴²⁾

38) 최근 10년(2015년~2024년)간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어를 활용하여 수집 및 검토한 후, 주제 연관성이 높은 연구를 분석하여 사례로 정리함. 특정 학교급에서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경우, 학술대회자료집 등에 수록된 실증연구를 추가함.

39) 김나영, 손윤희(2021); 도승이, 김성식(2014)

40) 김윤정 외(2017)

41) 정인관 외(2020), p.34

42) 김유경 외(2022)

표 5 사교육과 학업성취 간 관계에 관한 최근 실증연구 사례

연구대상 학교급	과목	연구결과(사교육 관련)	저자
초등학교	수학, 영어,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학 및 영어 학업성취도에 사교육비 지출액과 자기주도 학습시간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월평균 100만 원의 추가적인 사교육비 지출이 하루 1시간의 추가적인 자기주도 학습과 유사하거나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어 학업성취도에는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 모두 뚜렷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강창희, 박윤수(2015)
중학교	수학, 영어,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학 및 영어 학업성취도에 자기주도 학습시간과 사교육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자기주도학습의 효과가 사교육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국어 학업성취도에는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 모두 뚜렷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강창희, 박윤수(2015)
	국어, 영어,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과목에서, 사교육 시간과 사교육 비용 모두 국어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사교육 시간과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 그러나 그 효과가 크지는 않으며, 과목별 학습시간의 효과가 사교육 증가 효과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김진영, 오준범(2015)
고등학교	언어, 수리, 외국어 (수능 등급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위권 성적 분포(50~80%)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냄 하위권과 최상위권 성적 분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 부모의 양육유형이 '간섭형'인 경우, 자녀 성적 10%와 90% 분포대를 제외한 전 성적 구간에서 '민주형' 양육 유형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낮게 나타남 	이성림, 한윤선(2018)
	국어, 수학,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학습 참여 변인은 국어, 수학, 영어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사교육 시간은 수업참여도, 자기주도학습 시간, 학업적 효능감, 방과후학교 참여와 함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교과에서 사교육 시간보다 자기주도학습 시간, 수업참여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남 	임의진 외(2018)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학생 대상 2020국가수준 학업성취도(2020NAEA) 자료 분석결과와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SELS2010) 자료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 2020NAEA 자료 분석 결과, 영어 학업성취도에 자기주도학습 시간과 영어 수업 성실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 사교육 참여 시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자기주도학습 시간과 수업 성실도에 비해 그 영향력이 낮게 나타남 - SELS2010 자료 분석 결과, 영어 학업성취도에 사교육 참여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수업 태도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이정아(2023)
중·고등학교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시기 사교육 시간은 고등학교 3학년 수학성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 시기 자기주도학습은 고등학교 3학년 수학성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노언경 외(2020)

(2)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역량의 관계

- 자기주도학습 역량은 학교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계발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교수-학습 성과⁴³⁾
 - OECD 학습나침반에서 학습자 자기주도성이 강조될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평생학습 실천 및 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에 필수적인 역량임
 - 자기주도학습 역량은 학생들의 수업태도, 사회성, 긍정정서, 창의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⁴⁴⁾
- 본고에서 검토한 사교육 참여와 자기주도학습 역량의 관계에 관한 최근 연구사례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음(〈표 6〉)
 - 초등학교급에서 사교육 경험이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발달과정 상 상대적으로 교수자의 도움이 더 필요한 초등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가능
 - 중학교급에서는 사교육 경험이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갖더라도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급에서는 사교육 참여가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기 지속적인 사교육 참여는 대학진학 후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간 관계에 관한 최근 실증연구 사례

연구대상 학교급	과목	연구결과(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관련)	저자
초등학교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자기주도 학습 역량 하위 구성요소(메타인지, 학습주도성, 학습전략, 행동통제, 책임감, 동기)들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경미, 김혜련(2020)
중학교	일반교과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수강 경험이 있는 집단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사교육 참여가 자기주도학습역량에 미치는 효과는 학업성취도 '중' 및 '상'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취도 상위 집단은 사교육 참여가 자기주도학습역량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학업성취도가 중간인 집단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남 	김나영, 손윤희(2021)
중학교	3과목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위요인인 자발적 주도성과 학습자로서 자기이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진영, 정제영(2019)
고등학교	일반교과, 비교과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비교과 영역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재덕 외(2018)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사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집단(중2부터 고3까지 지속적 참여)에 비해 참여감소집단(중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 수준이 높았으나 고등학교 진학 이후 참여 수준이 감소) 및 참여저조집단(중2부터 고3까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가 저조한 집단)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게 나타남 	김윤정 외(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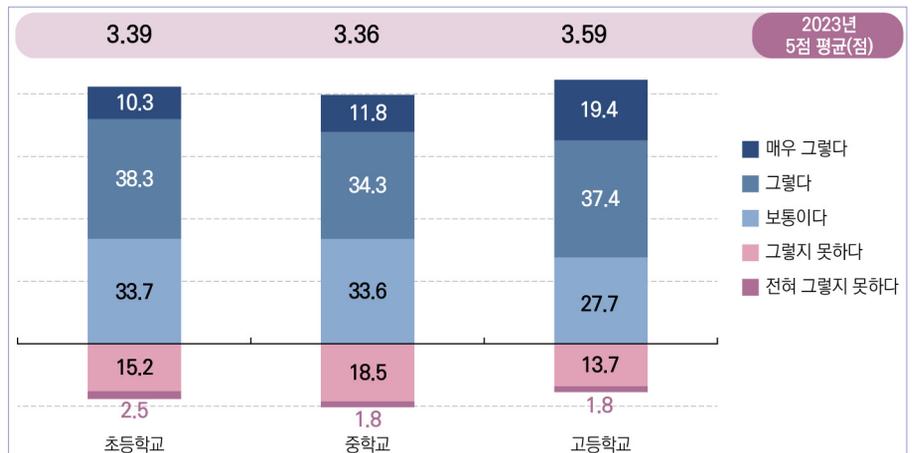
43) 김나영, 손윤희(2021); 이정아(2023)

44) 이경미, 김혜련(2020); 김영미, 전주성(2022); 김효원(2022)

○ 상반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이 가능함

- 사교육 참여 동기의 문제로,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교육 의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⁴⁵⁾
- 이러한 점에서 [그림 3]과 같이 '자녀 희망에 따라 사교육 참여 여부 및 과목을 결정한다'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초·중·고등학교 각각 48.6%, 46.1%, 56.8%로 나타나, 이외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로 인한 부작용에 관심이 필요할 것임
- 사교육을 통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음⁴⁶⁾
- 사교육이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는 경우,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⁴⁷⁾

그림 3 '자녀 희망에 따라 사교육 참여 여부 및 과목을 결정한다' 관련 학부모 응답: 2023년



출처: 권순형 외(202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p.190의 [그림 IV-68] (유치원 내용 제외)

(3) 사교육과 학습자 웰빙의 관계: 학업스트레스를 중심으로

- 학업스트레스 등 학업 관련 부정 정서 수준이 높은 경우, 학습흥미와 학습동기를 약화하고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
 - 평생학습사회에서 학습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
-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⁴⁸⁾, 이는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낙관성, 학습열의 등 긍정 정서 발달을 저해하여 개인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⁴⁹⁾
- 본고에서 검토한 사교육과 학습자 웰빙 관련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45) 김미숙(2003)

46) 김진영, 오준범(2015), 김윤정 외(2017)에서 재인용

47) 상경아, 백순근(2005)

48) 김리나(2021); 변상민 외(2018)

49) 성문주 외(2020)

제시함(〈표 7〉)

- 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주관적인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업 부담감을 높이는 과도한 사교육 참여를 지양해야 함
- 사교육 참여 시 부모의 생각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사교육 참여 동기(자발성/ 비자발성), 사교육 참여 수용 태도, 사교육을 통한 부모의 성취압력 등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 간 관계에 관한 최근 실증연구 사례

학교급	연구결과	저자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는 사교육의 수는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음 •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부담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황현주(2023)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소속 영재교육원에 재학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사교육 과목 수는 학업스트레스 및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 참여 동기가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인 동기인 경우가 부모와 타인의 주도로 사교육에 참여하게 된 경우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학습동기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김라경(2019)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이 바뀔때 따라 수학불안의 변화 양상을 연구한 결과,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할수록 수학불안(수학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거부감 등 부정적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김리나(2021)
중·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하고, 이는 청소년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주관적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냄 	장유진 외(2020)
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긴 사교육 시간, 높은 학업성취를 가진 집단(잠재계층)은 주관적 건강만족도가 낮고 잦은 병치레를 겪는 집단(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잠재유형이 전체 고등학생 집단 중 약 38%로 나타나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업성취 수준이 높으나 학업스트레스와 사교육으로 신체적 건강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구혜완, 정익중(2019)

(4) 사교육과 사회적 웰빙⁵⁰⁾의 관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과 저출산

- 과거 사교육은 공교육 붕괴 등 교육분야의 문제로 다루어왔으나, 최근 국가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⁵¹⁾
-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교육비 부담 관련,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3) 결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약 76%,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약 60%가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다(크다+매우 크다)고 인식함

50) 본고에서는 사회적 웰빙의 개념을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지원 방식의 사회적인 영향으로 광범위하게 해석·적용함

51) 국회예산정책처(2023.11) p.104

그림 4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다'는 학부모 의견: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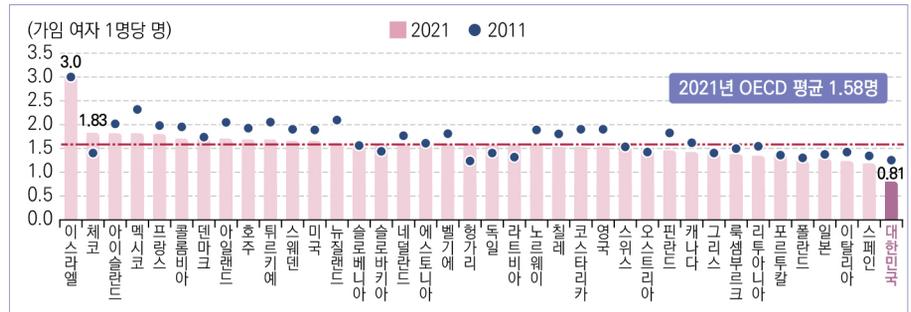


주) 학교급별 학부모 응답이며, '지출부담이 크다'와 '지출 부담이 매우 크다'로 응답한 비율
 자료: 권순형 외(2023), pp. 182-183 (표 IV-50)의 일부를 활용하여 그래프로 작성

■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에 심각한 위기

-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함: 2015년 1.24명, 2020년 0.84명, 2023년 0.72명⁵²⁾
-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을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8년째 최하위수준을 기록⁵³⁾

그림 5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비교: 2011, 2021년



원자료: OECD, 'Family Database'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3.7.11.),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일·가정양립과 외국인 현황 중심으로 조망」, p.4

■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의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2024)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력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감소하여 2040년에는 국내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⁵⁴⁾
 - 또한, 국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국가 혁신역량이 중요하나, 국내 연구인력 공급전망을 볼 때, 연구인력 고령화로 연구자당 생산성 감소 가능성 제기
- 한국경제인협회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26%가 사교육비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됨⁵⁵⁾

52) 통계청 보도자료(2024.2.28.)

53) 연합뉴스(2022.2.23.)

54) 연합뉴스(2024.2.15.)에서 재인용

55)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23.12.19.)

05

결론

1. 요약: 사교육 과열 현상의 원인 및 미래인재 양성과의 관련성 주요 내용

■ 사교육 과열의 원인

- 사교육 참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는 참여율이 월등히 높고 강화전략으로 활용되어 사교육 과열의 문제가 제기됨
- 학벌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의 사교육 과열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요구와 동시에 실제 자녀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사교육 이중성'의 원리를 작동하게 함
 - 대학 격차 및 일자리 격차가 큰 특성은 명문대 입학에 위해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 개인은 사교육 참여를 통해 경쟁우위를 갖고자 함
 - 물질주의와 학벌주의의 결합은 더 나은 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강화전략으로 사교육을 활용하게 함
- 사교육은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따르므로 교육소비자의 요구 및 목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서비스를 제공
- 공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족 혹은 불신 또한 사교육 참여를 유발
- 사회적 규범으로 자녀 학업성취 향상에 관한 부모로서 책임감과 타인과의 비교로 사교육에 참여하기도 함

■ 사교육과 미래인재 양성과의 관련성: 최근 실증연구 사례 검토

- 사교육이 학업성취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혹은 없다는 식의 단순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학생의 사교육 참여 동기과 태도, 사교육에서 부모개입 정도, 부모-자녀 관계 및 양육방식, 학업에 대한 중압감 등이 사교육 효과에 영향을 끼침
-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시간은 학업성취를 높이는 중요한 기제이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자기주도학습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아짐을 보여줌
 - 평생학습과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이 요구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향상을 위한 공교육 전략이 중요함
 -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교육 의존성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필요
- 학생의 관점에서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은 학업스트레스를 높여 학습 흥미와 동기 저하 및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저해할 수 있음

- 미래인재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이 필요하므로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의 관련성에 관심 필요
- 개인의 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과열된 사교육은 사교육비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이는 미래 노동시장에 인재 양적공급 부족을 야기하여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2. 사교육 경감 대책 관련 정책 시사점

-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고용 및 복지 등 사회분야 정책들이 정합성을 바탕으로 설계·추진되어야 함
- 개별 학습자의 학습요구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적 지원
 -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소비자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교육 참여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므로 시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공교육에서 이러한 요구를 흡수 가능
 -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필요
 - 교사의 디지털 역량,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 지원은 학습자 주도성을 향상하는 교사 전문성이 되므로⁵⁶⁾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 AI 기반 진학 및 진로 지원서비스 고도화
 - 높은 학업성취가 사교육의 효과라는 인식, 사교육에 대부분이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압력 등 사회적 규범으로 인한 사교육 참여 문제를 다루기 위해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AI 기반 진학 및 진로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충분하고 적절한 진학, 진로 정보제공과 개인별 성공전략 설계를 위해 서비스 고도화
 -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별 흥미, 적성, 강점 관련 피드백과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 및 진로를 학생이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지원
 - 학생 개인의 잠재력 계발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교육평가로 단계적 전환 및 중장기 일관성 확보
 - 상대평가는 기존의 경쟁 패러다임에서 학생 간 변별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 계발 및 학업성취 향상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방식은 아님⁵⁷⁾
 - 미래인재 양성 목표에 타당한 전략으로 교육평가 방식의 변화
 - 현실적으로 상대평가 방식을 단기간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개선 및 전환
 - 교육평가(특히, 대학입시 제도 관련) 정책의 잦은 변화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심리가 사교육 과열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중장기 로드맵 기반 일관성 확보

56) 홍수향, 장인실(2022)

57) 김경근(2021)

■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연계한 학습지원체제 강화

- 대학교육 진입 경로 다양화를 통한 대학입시에 집중되는 자원 분산
 - 대학교육 진입의 다양한 경로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 대학별 다양한 인재육성 전략 실행 및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 학습자의 능력과 소질을 현재와 미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연결하여 개발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혹은 창업 지원
- 노동시장에서 학벌 외에 경험을 통해 개발한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자격인증 체제의 신뢰성 강화
- 성인초기 이후에도 경력전환을 통해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신기술, 신산업 관련 직무로 경력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재직자 지원 방안 마련
 -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기술, 신산업 관련 직무로 경력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학 및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고 무상 혹은 합리적인 수준의 학습 비용으로 '누구나' 참여가능한 재직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지나친 임금 격차 및 일과 삶의 균형, 경력개발 지원제도 등 복리후생 격차 완화 방안 모색 및 추진
 - 대학생의 약 32%가 취업을 위해 연평균 218만원을 사교육에 지출하는 현실⁵⁸⁾은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방증하므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타당성이 높음

58) 잡코리아 취업뉴스(2021.2.16.)

참고문헌

- 강창희, 박윤수(2015) 사교육이 학생의 인지,비인지 역량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 학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8(4), 31-56.
- 구혜완, 정익중(2019) 고등학생의 학업 잠재계층과 신체건강 잠재계층 간의 전이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0(2), 333-363.
- 국회예산정책처(2023.11)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 전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 권순형, 이희현, 양희준, 도재우, 이정우(202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3).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 RR 2023-15.
- 김경근(2019) 변화의 시대에 한국 교육은 미래 세대를 적절히 준비시키고 있는가?. 교육학연구, 57(1), 221-252.
- 김경근(2021) 한국사회의 서열 중시 문화: 기원, 동인 및 교육적 유산, 교육사회학연구, 31(4), 33-69.
- 김나영, 손윤희(2021)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에 대한 사교육 참여 효과 분석, 교육혁신연구 31(4), 241-265.
- 김동현, 김선배, 김양숙, 안미숙, 이정은, 현정선, 홍수향 역(2020) (국역) OECD 학습나침반 2030.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과.
- 김라경(2019) 초등영재학생의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이 학습스트레스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지, 9(1), 635-643.
- 김리나(2021) 초등학교 학생의 수학불안 변화 분석: 종단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35(1), 1-14.
- 김미숙(2003) 사교육: 한국 중류층의 경쟁과 불안. 교육사회학 연구, 13(3), 43-63.
- 김영미, 전주성(202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2(1), 1-17.
- 김유경, 이정원, 김동호(2022) Elastic net 회귀분석을 활용한 고등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예측요인 탐색. 한국교육 문제연구, 40(2), 83-109.
- 김윤정, 김난옥, 강태경, & 임현정(2017) 청소년기 사교육 참여 양상이 대학에서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5(4), 143-166.
- 김정근(2020)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논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3), 139-179.
- 김진영, 오준범(2015) 패널 자료를 통해 본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1), 1-23.
- 김효원(2022) 코로나 19 상황에서 중· 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유형 분석 및 영향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60(5), 217-249.
- 김희삼(2019) 사교육 수요에 관한 행태적 분석. 응용경제, 21(4), 187-235.
- 노언경, 임혜정, 손수경, 김수혜(2020) 서울시 고3학생들의 수학성취에 대한 개인 및 중·고등학교수준 영향요인 검증 : 교

차분류무선효과 모형의 적용. 한국교육학연구 26(2), 81-106.

도승이, 김성식(2014) 중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및 자기조절학습의 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52(1), 59-87.

박현정, 변상민(2021)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중단분석: 지연효과, 횡단효과,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2(1), 61-95.

변상민, 신중휘, 양준혁(2018)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시간이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9(4), 913-944.

상경아, 백순근(2005) 고등학생의 수학 과외가 학업성취도, 태도,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18(3), 39-57.

성문주, 김종훈, 민지연, 박아름, 백수현, 한승현, 함은혜, 황혜영(2020)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현황 진단 및 교육 전략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호.

심지혜, 김안나(2022) 사교육 참여와 활용 전략의 국가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학연구, 60(6), 343-370.

여유진·정해식·김미곤·김문길·강지원·우선희·김성아(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경미, 김혜련(2020)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영어 자기주도학습능력 조사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40(3), 205-225.

이성림, 한윤선(2018)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29(4), 119-138.

이수민, 김경식(2021) 어머니의 사교육 실천의 구조적 원인: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론을 활용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사회학연구31(4), 101-140.

이재덕, 김정현, 함은혜, 이영신(2018) 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생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6(2), 167-200.

이정아(2023) 사교육과 학습자 노력 변인이 고등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27(5), 467-479.

이종재, 이희숙(2008) 사교육 현상에 대한 세계적 동향 분석: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기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2), 203-228.

이지영·고영선(2019) 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 경제학연구, 71(2), 155-204.

이진영, 정제영(2019)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경기교육중단연구 5차년도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7(2), 197-221.

임의진, 박인용, 정혜경, 서민희, 김완수, 한정아(201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영향요인 및 격차 탐색. 교육평가연구, 31(1), 125-153.

장유진, 이승연, 송지훈, 홍세희(2020) 부모 학력과 경제 수준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 시간과 학업 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2), 249-273.

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율(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 2000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제와사회 127, 12-59.

정태화(2004) 학벌주의 : 쟁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논의. Andragogy Today, 7(2), 93-129.

최수진, 김은영, 김혜진, 박균열, 박상완, 이상은, 장암미(2019)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19-06.

홍수향, 장인실(2022) 초등학교 수업에서의 학습자 행위주체성 사례연구: 교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40(3), 55-73.

황현주(2023) 한국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사교육 이용 개수와 사교육 부담감이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13(1), 37-50.

웹자료/웹사이트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20~2022)(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539)

머니투데이(23.1.17). '개천서 용 난다'는 옛말?... 부모 경제력이 학력격차 벌린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1715393499046>)

에듀인뉴스(2016.10.31.). [사교육 실태 분석]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가 될 수 있을까?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6>)

연합뉴스(2022.2.23.). 합계출산율 또 최저 기록...8년째 OECD 꼴찌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0223016800038>)

연합뉴스(2024.2.15.).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혁신으로 생산성 높여야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5047400003>)

잡코리아 취업뉴스(2021.2.16.). 대학생 31.6% '취업사교육 받아' ... 연평균 218만원 지출.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8641)

전자신문(2023.12.17.). '보통·우수학력' 학생 급감...중3 절반은 수학 '기초학력' 이하.

(<https://www.etnews.com/20231215000226>)

통계청 보도자료(2023.7.11.).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일·가정양립과 외국인 현황 중심으로 조망

통계청 보도자료(2024.2.28.).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보도자료(2024.3.14.). 2023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한국경제(2023.6.16.). 학생은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폭증... "학원비가 저출산 원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61652831>)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23.12.19).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931>)

OECD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홈페이지

(<https://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definitionandselectionofcompetenciesdeseco.htm>)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홈페이지(<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

Pew Research Center(2021.11.18.).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s From 17 Advanced Economies.

Retrieved from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11/18/what-makes-life-meaningful-views-from-17-advanced-economies/>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